배우 박용우, 28년 연기 외길 "요즘도 설렌다"

MBC 공채 탤런트 데뷔, "자연스럽게 연기를 즐기게 됐다"
'프리스트' 이후 3년 여만 드라마 출연…'트레이서' 오영 역

배우 박용우(51)는 요즘 연기의 맛을 느끼고 있다. 1994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 28년째 연기하며 슬럼프도 겪었지만 꾸준히 한 길만 팠다. "자연스럽게 연기를 즐기게 됐다"며 "최근에는 걱정되기 보다 설레는 마음이 크다"고 털어놨다. 작품을 결정할 때도 소신이 있다. "하나라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면 된다"는 주의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 '트레이서' 시즌1·2도 마찬가지다. '프리스트'(2018~2019) 이후 3년 여만의 드라마 출연인데, 단순하게 생각했다. 이 드라마는 누군가에겐 판검사보다 무서운 곳 국세청, 일명 '쓰레기 하치장'이라 불리는 조세 5국에 굴러온 '황동주'(임시완)의 활약을 그렸다. 박용우는 조사5국 2과장 '오영'을 맡았다. 한때 조세국 에이스로 활약했지만, 일을 안 하는 게 신념인 인물이었다. 동주와 부딪히며 바뀌었다.

"오영도 판타지적인 부분이 있지만, 일정 기간 직장생활을 했다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직장인들은) 마음 속 억눌릴 감정을 표현하고 당당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오영을 통해 대리만족하길 바랐다. 초·중반까지만 남루하고 의기소침한 모습 보이다가 감정적인 변화를 겪지 않았느냐. 기본적으로 위축 돼 있지만 에너지가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촬영하면서도 행복했다. 서로 염치있게 살면 좀 더 행복한 세상이 될 것 같다."

오영 대사는 통쾌함을 줬다. 이승영 PD 역시 '오영 대사 때문에 이 드라마를 했다'고 할 정도다. 박용우는 "굉장히 부담됐다"면서도 "대사가 좋아서 기억에 남는다"고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침묵하고 입 다물고 계시면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돈 있는 자들이 제일 무서워 하는 게 평생을 고개 숙이면서 말없이 지낼 거라고 생각한 상대가 어느새 돈을 들고 따져 묻기 시작할 때다. 포기하지 말아라'다. "웨이브에서 선공개해 여러 번 봤는데 '작가님이 대단하다'고 느꼈다"며 "멋 부리려고 쓰면 두 번째에 뽀록이 나는데, 보면 볼수록 재미있고 의미가 있더라.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극찬했다.

"어떤 역이든 내 안에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걸 찾으려고 한다. 예전에 자의 반 타의 반 몇 년 정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안 한 기간이 있다. 내적으로도 연기에 회의적이었는데, 지금은 연기가 재미있다. 오영도 휴지기가 있었고, 이후 변화를 겪은 부분이 비슷하다. 동주처럼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준 존재가 있냐고? 내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트레이서는 국세청을 배경으로 해 신선함을 줬다. "본격적으로 국세청을 소재로 다룬 드라마는 트레이서가 처음"이라며 "낯선 분야라서 용어가 어려웠다. 그냥 외워서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알아야 맥락에 맞게 표현할 수 있다. 촬영장에서도 다들 공부하는 분위기였다"고 돌아봤다.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이 대사를 쉽게 받아들일까?' 고민했다. "대사가 많으면 운율을 타야 한다. 중간에 호칭, 애드리브 등을 넣기 쉽지 않은데 계속 그렇게 했다"며 "어려운 용어가 반복되면 쉽게 풀어가려고 하는 등 매 신마다 디테일한 부분을 신경썼다"고 덧붙였다.

임시완과 브로맨스도 돋보였다. "몇 몇 장면은 조금 오글거렸지만 드라마적인 특성이다. 그게 너무 없으면 드라마 미덕이 빠진다"며 "임시완씨와 많이 친해져서 좀 더 편하게 연기했다"고 귀띔했다. "임시완은 촬영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민한다"며 "상대방과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의논해 즐거웠다"고 했다.

애초 트레이서는 웨이브에서만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MBC TV 금토극으로도 방송했다. 시즌1은 시청률 7~8%대로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 등으로 자주 결방해 흐름이 끊겼다. 더욱이 시즌2는 웨이브에서 전 회차를 한 날에 공개하고 MBC에서 뒤늦게 방송했다.

박용우는 "시대의 변화"라며 "처음에는 웨이브로만 공개한다고 들었는데, 촬영 중반부쯤 MBC에서도 방송한다고 하더라. 장단점이 있을텐데 긍정적으로 보려고 했다"며 "여러가지 상황에 비해 시청률은 좋았다. 이 업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다. MBC와 함께 한다고 해 시청층이 확장된다고 생각했다. (OTT가 발전할수록) 시청률이라는 절대적인 수치를 피부로 느끼는 반응이 순화될 것"이라고 했다.

박용우는 운동과 영어 공부에 푹 빠져있다. 국장이 된 오영의 정장패션도 화려했는데 "인생 모토가 섹시함"이라며 웃었다. "예전에는 내면적인 섹시함만 생각했다"며 "어느 순간 '외적인 것도 떨어질 수 없겠구나' 생각해 운동을 시작했다. 꾸준히 운동하니 마인드도 건강해지고 현장에서도 지치도 않더라. 평생 운동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꼭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고 영어 공부를 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글로벌화가 되지 않았느냐. 새로운 문화 OTT의 큰 장점 중 하나다. 거부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고 짚었다.

최근 경제적인 독립을 선언했다. "이 정도면 경제적인 자유를 선언해도 괜찮을 것 같았다"며 "이후 들어오는 돈은 여러 가지 꿈을 펼칠 수 있는 보너스로 생각하고 살겠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미혼인데, 이 PD가 '현숙한 여인을 만나 좋은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한 바람이 올해 이뤄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왜 안 나오나 했다"면서 "알 수 없다. 아름다운 사랑을 하면 너무 감사하고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박용우는 로맨스·액션·사극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했다. 드라마 '종이학'(1998~1999) '선희 진희'(2001) '무인시대'(2003~2004) '제중원'(2010) '인생 추적자 이재구'(2015) 등에 출연했다. 영화 '쉬리'(감독 강제규·1999) '뷰티풀 선데이'(감독 진광교·2007) '원스 어폰 어 타임'(감독 정용기·2008) '파파'(감독 한지승·2012) '카센타'(감독 하윤재·2019) '유체이탈자'(감독 윤재근·2021) 등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약 30년간 연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사랑 감정, 사람 본질을 고민하는 직업이라서 무궁무진하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특화된 감정이 있지 않느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표현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닐까. 스스로 부끄럽지 않으면 남들 시선에도 느껴질 거다. 스스로한테 창피하지 않으면 적어도 대중들에게 억울한 평가는 안 받지 않을까 싶다.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

'어린시절 800평 대궐집 살던' 여에스더, 국외추방 당한 이유…'신과 한판'

예방의학 박사 여에스더가 파란만장했던 가정사를 고백했다.

여에스더는 지난 25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신과 한판'에서 "할아버지가 대구에서 대구일보 언론사 사주를 하셨고, 고(故) 이병철과 제일모직을 같이 시작했다"고 말했다.

여에스더는 어린 시절 살던 집에 대해 "800평 대궐 같은 곳이었다. 집을 돌보는 집사 아저씨에 기사님도 두어 분이 계시고 저희를 키우는 보모도 있었다"고 했다.

또 "할아버지가 고 박정희 대통령과 가까워 박 대통령, 육영수 여사가 대구에 오시면 저희 집 마당에 오셨었다"고 했다.

여에스더는 "1971년 대통령 7대 선거 당시 고 김대중 대통령이 신민당 후보로 대구에 유세를 오셨는데 당시 TK(대구·경북)는 김 대통령의 선전물을 어떤 언론사도 찍어주지 않았다"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대구일보 기획실장이었는데, 할아버지는 박 대통령과 친해 절대 못하는데, 아버지가 반골 기질이 있어 밤사이 친구들과 윤전기를 돌려 인쇄를 했다"고 말했다.

이후 "안기부 전신인 중앙정보부에서 바로 아버지를 잡아가고 할아버지는 청와대에 찾아가 박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는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국외추방을 당하셨다"고 밝혔다.

여에스더는 "할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사업체가 하나 빼곤 산업공사라고 하는 자산관리 공사로 넘어가고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국내에) 발을 못 붙인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실 때 그때 국내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서 복잡한 환경에서 살다가 일본에선 온전하게 저희 식구만 살았다. 집안에 시끄러운 일도 없고, 저희에겐 아주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집안 내 많았던 굴곡과 유교식 교육 등으로 인해 어린시절 화가 많이 쌓였고, 전문의를 딴 뒤 노처녀가 돼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고백했다. 다만 결혼 후 남편 홍혜걸 덕분에 많이 좋아졌다고 덧붙였다.

서울대학교 의과대를 졸업한 여에스더는 의사 함익병과 함께 피부과 클리닉에 등을 운영하며 이름을 알렸다. 현재 유산균 등 영양제 사업을 하고 있다.

아이브, '러브 다이브' 싱글 콘셉트 포토 공개

걸그룹 '아이브(IVE)'가 매력을 뽐냈다.

아이브는 지난 25일 공식 SNS 채널에 두 번째 싱글 '러브 다이브(LOVE DIVE)'의 사진을 공개했다. 단체사진에서 아이브는 머리 위에 왕관모양의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고 개성있는 교복 의상을 소화했다. 특히 유진은 긴 생머리를 휘날리며 도도한 눈빛으로 카메라 렌즈를 응시했고, 레이는 독특한 히메컷 헤어스타일을 선보였다.

아이브의 새 싱글 '러브 다이브'는 사랑할 용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뛰어들어 보라는 당당하고 거침없는 메시지가 담긴 앨범이다. 해당 곡은 4월5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사내맞선' 끌고 '스물다섯' 밀고…넷플릭스 세계 5·10위

두 작품 모두 시청률 10% 넘어 인기몰이 중

'K-로맨스' 드라마가 세계에서 통했다.

27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순위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국내 드라마 2편이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SBS TV 월화극 '사내맞선'은 5위, tvN 주말극 '스물다섯 스물하나'는 10위를 기록했다.

국내 넷플릭스 1위는 손예진 주연 JTBC 수목극 '서른, 아홉'이다. 2·3위는 사내맞선, 스물다섯 스물하나가 뒤를 이었다. 사내맞선은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베트남 등 총 7개국에서 1위에 올랐다. 미국에서는 지난 23일 8위를 기록한 후 10위권에서 벗어났지만, 동남아시아에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안방극장은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사내맞선은 회사 사장 '강태무'(안효섭)와 맞선을 보게 된 직원 '신하리'(김세정)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동명 웹소설이 원작이다. 스물다섯 스물하나는 1998년 시대에 꿈을 빼앗긴 '나희도'(김태리)와 '백이진'(남주혁)의 성장과 사랑을 다뤘다. 두 작품 모두 시청률 10%를 넘어 인기몰이 중이다.

서른 아홉은 마흔을 코앞에 둔 세 친구 '차미조'(손예진) '정찬영'(전미도) '장주희'(김지현)의 우정과 사랑, 삶에 관한 이야기다. 중·후반부로 갈수록 뻔한 전개에 혹평이 적지 않지만, 손예진 인기에 힘입어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다. 전날 일본 넷플릭스 TV쇼 부문에서 서른

아홉(1위)을 포함해 국내 드라마 7편이 톱10에 들었다. 사내맞선은 2위, 스물다섯 스물하나는 7위를 차지했다. 박민영 주연 JTBC 주말극 '기상청 사람들 : 사내연애 잔혹사 편'은 5위에 랭크됐다. 8~10위는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방법'(2020) '이태원클라쓰' 순이다.

'트레이서2', 유종의 미…자체최고 시청률 9%로 종영

분당시청률 12.5% 기록

MBC '트레이서 시즌2'가 자체최고 시청률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2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트레이서 시즌2' 최종회 시청률은 전국 기준 9%를 기록했다. 분당시청률은 12.5%, 수도권시청률은 9.8%를 기록했다.

시즌 1회에서는 첫회 7.4%로 시작해 3회 8.6%로 최고시청률을 찍고 8회 종영때까지 7~8%의 시청률을 유지했다. 하지만 2022 베이징올림픽 방영으로 미뤄져 2월26일 시작된 시즌 2에서는 흐름이 끊겨 2회 시청률이 4.1%까지 반토막났다. 이후 4~8% 사이의 들쭉날쭉한 시청률을 보이다 마지막회 9%로 끌어올렸다.

최종회에서는 황동주(임시완 분)가 수년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버지 황철민(박호산 분)의 사고 현장 블랙박스영상을 공개하자 인태준(손현주 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최후를 맞이했다. 이후 황동주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깨끗한 조직이 필요하다며 스스로 조세 5국을 떠났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서혜영(고아성 분), 오영(박용우 분)의 모습이 담겼다.

한편 후속작으로 4월1일 오후9시50분 김희선, 로운이 주연한 '내일'이 방송된다.

권은비, 이번엔 도도·시크 블랙스완…다음달 컴백

그룹 '아이즈원' 출신 가수 권은비가 신곡 콘셉트 사진을 모두 공개했다.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26일 공식 SNS 채널에 권은비의 두 번째 미니앨범 '컬러(Color)'의 마지막 콘셉트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권은비는 깃털로 꾸며진 블랙 드레스와 얼굴을 덮은 화려한 디자인의 액세서리로 우아하고 고혹적인 매력을 자랑했다.

권은비는 7개월 만에 미니앨범 '컬러'로 컴백한다. 앨범은 오는 4월 4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